

백신 시장도 M&A 붐 점입가경!

GSK, 헝가리 Teva 자회사 인수 ... 스위스 Berna도 Rhein 합병

백신(Vaccine) 생산코스트 증가에 따라 유럽에서 백신 생산기업들의 거대합병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제약기업들이 인수를 통해 사업범위 및 생산능력 확장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시장의 1/4을 차지하고 있는 백신 생산기업 GSK(GlaxoSmithKline)는 2002년 4월 헝가리에 기반을 두고 있는 주요 동유럽 생산기업인 Teva Pharmaceutical의 자회사 Human Serum & Medicine Manufacturing을 인수했다. 인수에 따라 GSK는 DPT 면역을 위한 Antigen 생산능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됐고, 복합 DTP 백신 Tritanix를 통해 GAVI 프로젝트의 최대 공급기업으로 부상했다.

유럽 백신시장에서 최근 가장 큰 인수는 스위스 Berna Biotech이 독일 Rhein Biotech를 인수한 것으로 Berna는 세계 최대의 백신 생산기업으로 부상했다.

합병 이후 Berna는 2002년 전망치보다 판매량 및 수익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는데 Hepatitis A(A형 간염)와 Typhoid Vaccine(장티푸스 백신)의 생산차질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에는 매출이 25% 신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알당 평균가격이 10유로(10달러)에 달하는 플루백신 시장전망이 밝기 때문이다.

2010년까지 백신 매출을 10억달러로 확대할 계획인 Baxter International은 오스트리아 Vienna, 체코 Prague 근처에 Cell-Culture 프로세스를 사용한 플루백신을 제조하기 위해 플랜트를 건설중이다.

유럽의 백신 생산기업들은 개발도상국의 면역률을 끌어올리게 될 Travel Vaccines 시장확대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국의 백신 개발 및 생산기업인 Acambis는 일차적으로 Travel Vaccine을 타겟으로 하게 될 Denguefever Vaccine 1단계 실험을 완료했다. Acambis는 Denguefever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백신 개발은 전세계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감염위험 노출 대상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며, 긍정적 실험결과로 목표달성에 큰 도약을 하게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Acambis는 미국 정부에 천연두 백신 알약 2억개 상당을 공급하는 4억2800만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사추세츠주 Cambridge 플랜트에서 생산할 예정이다.

Avecia도 임상실험을 위해 사용될 2000개의 Anthrax Vaccines을 개발하기 위해 미국 National Institute of Allergy & Infectious Diseases와 900만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영국 북서부 Billingham 소재 Avecia의 Biologics 센터에서 생산할 예정으로 바이오제약의 상업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1억달러를 투자했다.

한편, WHO, UNICEF, 서방국가 등이 후원하는 Global Alliance for Vaccines & Immunization(GAVI)와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같은 자선기관들이 파트너십으로 면역 관련 전세계적 불균등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WHO/UNICEF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에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백신을 생산하기 위한 연구 및 생산능력 재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세계 원조기구들과 기타 비정부기구들이 좀 더 저렴한 백신 공급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유럽 생산기업들은 의약품 허가당국이 부가한 각종 Liability와 생산기준 등의 영역에서 증가하는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11/25